

□ 중국 생산동향

- 양란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가 없으나 '05년 기준해 분화로 재배면적은 31,476ha이며 소비량은 185백만분, 총 판매액은 825백만元に 달함
- 생산량은 '05년 이후 중국현지 생산업체 수와 국내 생산업체 현지진출 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

□ 중국 수입동향

- 난초(꽃다발 제조용, 장식용 절화) HS Code : 060313
- 중국에서 난초를 주로 수입하는 국가는 태국, 뉴질랜드, 독일, 라오스, 대만 등으로 조사

< 중국 난초 수입 규모 (금액 기준) >

단위 : 백만 달러, %

순위	국가	2008		2009		2010	
		금액	증가율	금액	증가율	금액	증가율
	총계	15.2	100	15.1	100	15.0	100
1	태국	15.2	99.97	15.1	99.80	14.9	99.56
2	뉴질랜드	0	0.00	0.0	0.06	0.03	0.17
3	독일	0	0.00	0.0	0.10	0.02	0.14
4	라오스	0	0.00	0	0.00	0	0.06
5	대만	0	0.00	0	0.01	0	0.05

출처 : Global Trade Atlas

- 중국에 수입된 난초 총액은 2010년 1,5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, 이는 전년도 동기대비 100% 증가한 수치임
- 2010년에는 태국에서 수입된 난초 수입액이 1,490만 달러로 가장 높은 규모 액을 기록하였으며, 이는 전년도 동기대비 99.56% 증가한 수치임
- 그 뒤를 이어 뉴질랜드, 독일, 라오스, 대만에서 제품을 수입
< 중국 난초 수입 규모 (물량 기준) >

단위 : 백만 kg, %

순위	국가	2008		2009		2010	
		물량	점유율	물량	점유율	물량	점유율
	총계	6.6	100	6.8	100	7.3	100
1	태국	606	99.97	6.8	99.93	7.2	99.78
2	뉴질랜드	0	0.00	0	0.04	0	0.10
3	라오스	0	0.00	0	0.00	0	0.07
4	대만	0	0.00	0	0.00	0	0.03
5	독일	0	0.00	0	0.01	0	0.01

출처 : Global Trade Atlas

- 2010년 중국이 수입한 난초 중 태국산이 720만 kg을 기록, 전체 수입규모 중 99.78%를 차지
- 그 뒤를 이어 각각 뉴질랜드, 라오스, 대만, 독일이 있음

□ 중국시장 내 한국 양란

- 중국 양란 시장규모는 수입산 약 80만본, 현지생산 약 120만본 등 약 200만본 수준
- 한국산이 전체 수입의 90% 내외 차지하며, 일본산, 대만산이 일부 수입
- 중국 내 심비디움 시장은 한국산이 주도하고 있으나, 중국생산농가 기술향상 및 경쟁국산(일본, 대만)의 수입증가로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
- 품질은 일본산에 뒤떨어지지 않으며, 대만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며, 가격은 일본산보다 낮고, 대만 및 중국산에 비해서는 높은 편임

□ 중국 통관 및 수입검사

- 난초(꽃다발 제조용, 장식용 절화) HS Code : 0603130000

< 난초 통관비용 구성 >

단위 : %, 1000g 당

구분	합계	관세	누진세
난초(절화)	23~113	10~100	13

- 중국 본토로 수출할 경우, 발생하는 비용은 관세 10~100%, 누진세 13%로 제품가의 23~113% 수준
- 꽃이 핀 난초 덩이줄기 HS Code : 0601200010

< 난초 통관비용 구성 >

단위 : %, 1000g 당

구분	합계	관세	누진세
난초	28~93	15~80	13

- 중국 본토로 수출할 경우, 발생하는 비용은 관세 15~80%, 누진세 13%로 제품가의 28~93% 수준

□ 중국 가격동향

- 중국 전국에서 판매되는 양란 평균 가격

제품명	가격	무게	원산지
심비디움	115 위안	1개	중국
심비디움	130~140 위안	1개	한국

출처 : 百度 baidu.com

- 2010년 기준 중국 양란 평균가격은 개 당 115위안, 한국 평균가격은 개 당 130~140위안임

□ 중국 유통동향

- 대부분 수입상이 도매상을 병행하며 중도매인을 통해 전국으로 유통
- 중국에는 경매형식의 거래가 없어 시장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고 있으며 품질은 중국산 상품이 수입산 중품

과 비슷

- 심비디움 유통량은 광둥성이 약 50%를 차지하며, 산둥성이 20~30%, 기타 북경, 상해 등지에서 주로 유통됨
- 중국의 양란 시장규모는 수입산 약 80만본, 현지생산 약 120만본 등 약 200만본 수준
- 국산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, 최근 현지 생산량 증가와 타국산(일본, 대만)의 수입 증가로 경쟁 심화 추세
- 국내 판매가격은 일본산이 가장 고가로 판매되고, 현지 생산품은 대략 한국산보다 10元/분 정도 낮은 가격 형성
- 한국산 130~140元/분(3대), 일본산 180元, 중국산 115元

□ 중국 소비동향

- 중국의 화훼시장은 경제발전과 함께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, 소비자 구매력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소비지역은 북경, 상해, 광주 등 일부 대도시에서 집중되어 극심한 지역적 편차를 보임
- 화훼는 사치품으로 여기는 관념이 있으며 선물용 소비가 많음, 특히, 분화류는 선물용으로 춘절(구정)시기에 수요가 집중되며, 심비디움의 경우 수요의 90%이상이 춘절기간에 소비되고 있음
- 한국산 심비디움은 춘절(구정) 선물용으로서 12월말~1월 중

순까지 약 20일~1개월내에 집중 수입되며 관공서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음

- 중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품종은 대화형과 중화형이며, 색깔은 녹색, 빨강색, 노랑색이 비교적 개인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빨강색 심비디움에 대한 소비열정은 다소 주춤